

필리핀 2024: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국내·외 안보 위기의 연속*

양창원**

국문초록

2024년 필리핀은 마르코스 행정부 집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안보적 위기를 겪었다. 국내 정치에서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의 관계 악화로 양측의 갈등이 극단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성장률과 물가 안정이 마르코스 정부의 지지율을 뒷받침했지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지방정치 복귀는 양측 간 정치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지방선거는 두 거대 정치 세력의 세력 규합과 권력 다툼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불법 온라인 단체 검거와 이와 연루된 간첩 사건은 필리핀 안보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 지속되는 중국과의 영토분쟁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필리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안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필리핀 정부는 해양 권리 보호를 위한 국내법 제정과 주변국과의 외교 및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 한국은 외교 수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에너지를 비롯해 건설, 해양 안보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의 필리핀은 정치·안보 구조의 과제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향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3243)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 changwon@u.sogang.ac.kr

후 권력 지형과 외교적 전략의 전환점을 제시한 해로 평가될 것이다.

주제어: 두테르테,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서필리핀해 영유권 분쟁, 필리핀 외교안보, 필리핀 중간선거

I. 들어가는 말

2024년 필리핀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며 주목할 만한 양상을 보였다. 필리핀의 국내·외 정치 상황은 국내 정치 세력 간의 역학, 경제 회복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분쟁을 둘러싼 국제적 협력의 전개가 맞물리면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필리핀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필리핀 정치와 사회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필리핀의 정치 행위자 간 갈등을 조명함으로써 2024년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이하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Sara Zimmerman Duterte-Carpio, 이하 사라) 부통령 간의 권력 경쟁이 필리핀 정치의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둘러싼 두 세력 간의 대립은 단순한 정책적 충돌을 넘어 정치적 이미지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두테르테 진영에서 제기한 독재 정치 우려와 마르코스가 강조한 경제 개혁 논리는 상반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필리핀 국민에게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

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은 중간선거를 앞둔 권력 구도 재편으로 이어지며, 필리핀 정치의 불확실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정치 및 사회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 정치인이 연루된 불법 도박장 검거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안보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해당 정치인이 필리핀의 경쟁국과 경제적 후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간첩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지방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필리핀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가 주변국의 간첩인지 아니면 불법 도박단의 일원인지는 여전히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필리핀의 안보적 위협과 정치 및 사회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정부 주도 개발 프로젝트인 BBM(Build Better More)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마르코스 행정부의 전반기 경제 정책은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필리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특정 지역과 부문에 집중된 투자와 급증하는 국가 부채는 지속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관광산업의 회복은 필리핀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낙관론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마르코스 정부의 전반기 경제 정책의 결과가 후반기 정책 방향과 필리핀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서필리핀해 영유권 분쟁과 필리핀의 전략적 다자간 협력이 중요한 화두였다. 필리핀은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군사적 행보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과 군사적 역량 증대에 힘썼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리핀의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내 안보 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방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필리핀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변화의 주요 사례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필리핀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II. 정치: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1. 마르코스-두테르테의 대립 구도: 헌법 개정 논란과 정치적 이미지 전쟁

국내 정치에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 서필리핀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것이 마르코스의 주요 외교적 과제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마르코스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라와 정치적 결별을 본격화했다. 동시에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외교적 행보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마르코스의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은 전임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이하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인 친중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마르코스는 서필리핀해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취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통적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구체화하였다(김동엽 2024). 이에 미국은 필리핀에 대통령 무역 및 투자 사절단을 파견하고, 미화 1,000억 달러 규모의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화답하였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03/12).

마르코스의 외교 정책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된 것이 두테르테 진영과의 정치적 균열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두테르테 가문과의 정치적 경쟁 구도 속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정책을 탈피하려는 마르코스의 행보는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Storey 2024).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필리핀의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 진영 간의 결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De Leon 2024). 지방선거와 상원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필리핀의 중간선거는 정치적 열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국면은 본 선거 이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필리핀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정계 복귀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조셉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는 부패 혐의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2013년 마닐라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또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후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다가오는 2025년 총선에도 출마한 상태이다. 이러한 선례들은 필리핀 정치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재진입이 낯설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테르테의 정계 복귀도 크게 이례적인 일로 보

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두테르테의 이번 다바오 시장 출마는 단순한 정치적 재기를 넘어서, 그의 아들인 현 다바오 시장 세바스찬 두테르테(Sebastian “Baste” Zimmerman Duterte, 이하 세바스찬)의 불확실한 재선 전망과 사라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바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언론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세바스찬은 과거 아버지의 후광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기피하며, 시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공식 행사에 부시장을 대신 참석시키는 등 불성실한 행보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Anonymouse interviewee 2025/01/23). 이러한 상황에서 카를로 노그랄레스(Carlo Nograles)가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며, 세바스찬의 재선 전망이 불투명했다. 비록 이후 가짜뉴스로 확인되었으나, 온라인에서 공유된 설문조사에서 노그랄레스가 세바스찬을 크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세바스찬의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강화되기도 했다(Bueser 2025).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정계 복귀는 단순한 개인적 복귀라기보다, 여전히 다바오에서 높은 지지율을 지닌 자신이 시장직에 직접 당선된 후, 이후 아들 세바스찬에게 자리를 물려주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다바오 정가에서 해석되고 있다. 두테르테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너무 늙었으며,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언급하며(Lacorte and Germelina 2024), 그의 출마 목적이 개인적 재기보다 세바스찬의 정치적 생존에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현직 다바오 시장인 세바스찬은 부시장직으로 자리를 옮겨서 출마하기로 하며 두테르테의 정계 복귀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테르테의 다바오 시장 출마가 가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라에 대한 정치적 지

지를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Magramo 2024).

두테르테의 복귀는 필리핀 정치의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는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경쟁 구도가 단순한 집권 연합 내부의 균열을 넘어 정치적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의 대결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두 진영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는 필리핀 정치에서 양 진영의 향후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와 같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선호도가 양극으로 갈라지며, 정치적 선호에 따른 동질적 집단이 형성되고 양측 간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 상태를 의미한다(Przeworski 2019: 113). 그러나 양극화는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감정적 양극화까지 포함한다. 감정적 양극화는 정치 지지자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반대 진영을 적대시 하며,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현상이다(McCoy and Somer 2018). 필리핀 정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는 이념적 갈등보다는 특정 정치 인물에 대한 지지와 반감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정적 양극화의 양상을 띤다. 특히, 마르코스와 두테르테라는 두 정치 가문의 세력 확장과 그로 인한 정치적 대결 구도는 필리핀 정치에서 감정적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2024년 필리핀 정치의 양극화 심화와 향후 권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코스 진영의 정치적 세력 통합 노력과 두테르테 진영의 전략적 대응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르코스 행정부의 전반기는 양측이 서로를 탐색하며 정치적 균형을 모색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초기에는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두 진영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점차 심화하였다. 연말에 이르러서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부통령 간의 극단적인 언행이 오가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두 집권 연합의 권력 경쟁은 정권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었으며, 임기 초반부터 내부 균열 조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 초기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Zialcita 2024). 이는 필리핀 정치 환경이 여전히 과편화된 정치 구조와 인물 및 지역적 기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갈등 축적은 2024년 초에 전면적인 대결로 발전했다. 이러한 긴장은 두테르테가 다바오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를 열면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두테르테와 세바스찬 현 다바오 시장이 주도한 이 집회에서, 두테르테는 마르코스를 마약중독자로 지칭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치 현 대통령이 아버지 마르코스처럼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자의 길을 가려 한다는 뜻이 묘사하기도 했다(Ratcliffe 2024a).

실제로 두테르테는 마르코스의 헌법 개정이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시니어의 행적을 따르는 것이라 언급하기도 하는 등 헌법 개정 시도 자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Bajo and Ombay 2024). 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두테르테는 마르코스 진영의 주요 인사이자 그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Martin Romualdez) 하원 의장이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는 로무알데스가 지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마르코스 가문이 정권 연장을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려 했다(Gomez 2024). 그러나 두테르테의 이러한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

지 않았다.

한편, 마르코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자유화를 통한 빠른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헌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경제 분야의 개혁으로, 외국인의 공공 서비스, 교육, 언론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정치적 측면의 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Palatino 2024). 따라서 두테르테의 주장은 헌법 개정과 독재라는 이미지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덧씌워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두 정치 세력 간의 이러한 노골적인 비난 이면에는 상반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두테르테의 비난은 마르코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차차’(Charter Change)로 불리는 헌법 개정은 과거 마르코스 시니어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 정치를 실행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필리핀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다(De Guzman 2024).

따라서 마르코스가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정치적 행보를 반복하는 것으로 비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헌법 개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두테르테는 마르코스 정부가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수사만으로도 마르코스 진영에 부정적인 정치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었다. 두테르테의 마르코스에 대한 헌법 개정 및 마약 관련 비난은 궁극적으로 두테르테 진영이 민주적 헌법 수호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마르코스 진영은 두테르테의 초헌법적 살인과 인권 탄압을 비판

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필리핀의 인권운동가이자 상원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레일라 데 리마(Leila de Lima)의 보석 석방이 있었다. 데 리마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으로 재직시, 두테르테의 마약 사범 관련 초법적 살해 사건을 조사하며 두테르테에게 대항했던 인물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데 리마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마약 거래상과 유착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데 리마가 현직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건은 필리핀 정치사에서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특히, 데 리마가 유죄를 확정 받아도 최대 징역 6개월에 불과한 사건에서 6년 넘게 투옥된 점은 두테르테의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기도 한다(Cl Clarke-Billings 2024). 따라서 데 리마의 석방은 마르코스 정부와 두테르테 진영의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한 사건으로, 두테르테 정치 세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활동과 관련해 마르코스 정부의 태도가 변화한 점도 마르코스가 두테르테 진영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ICC는 두테르테가 소위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천 명을 초법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조사하려 했으나, 마르코스는 ICC의 조사 권한을 문제삼아 ICC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Flores 2024).

그러나 마르코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만약 두테르테가 ICC 조사에 협조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를 막지 않겠다고 했다. 이로써 ICC 조사 문제를 두테르테에게 떠넘김으로써 두테르테 진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마르코스의 발언은 상원 청문회에서 두테르테가 다바오에서 암살 부대를 조직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두테르테의 인권 유린 혐의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당시 고위 경찰관이었던 로이나 가르마(Royina Garma)는 두테르테가 대통령 재임 당시 경찰에게 암살 부대를 조직하도록 지시했고, 살인 건당 금전적

보상을 약속했다고 증언하면서 두테르테의 책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다(Ratcliffe 2024b).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원 소수당 대표인 아킬리노 피멘텔(Aquilino Pimentel)은 필리핀의 ICC에 대한 재가입이 비민주적 정치 지도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원의장 치즈 에스쿠데로(Chiz Escudero) 역시 ICC의 요구에 따라서 상원의 조사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반(反)-두테르테 진영이 두테르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ICC 재가입 여부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최근 상원의 요구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마르코스 정부의 기존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측의 정치적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음을 대변한다(Ayalin 2024).

앞서 언급된 전현직 대통령 간의 정치적 수사 대결과 두테르테에 대한 상원의 압박에 더해, 사라의 내각 사퇴는 마르코스과 두테르테 두 정치 연합이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난 6월, 사라의 자신이 겸직 중이던 교육부 장관직과 무장 공산주의 갈등 종식을 위한 전담 조직(National Task Force to End Local Communist Armed Conflict)의 부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하였다.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라의 내각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라의 사임 발표가 본인이 아닌 대통령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사임의 구체적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는 마르코스과 두테르테 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일부 분석가는 사라의 내각 사퇴가 마르코스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사라의 정

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동시에 두테르테 진영의 정치적 결집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았다(Flores & Lema 2024).

한편, 2024년 11월,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는 자신이 암살당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을 비롯해 하원의장 마틴 로무알데스를 암살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마르코스 진영은 이를 대통령 암살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두테르테 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Gutierrez 2024).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적 차이를 넘어,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갈등이 미래 권력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고위 지도자 간의 공개적 위협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은 필리핀 정치가 점점 더 극단적인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중간선거는 마르코스과 두테르테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스 진영은 일로코스 노르테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강화하며 강력한 정치권력을 재확인하려 하고, 두테르테는 다바오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치 지형은 남부의 두테르테와 북부의 마르코스로 양분되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차기 대선에서 사라 두테르테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차기 대선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헌법상 재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간선거는 정치의 권력 재편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간선거는 단순한 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사라 두테르테를 포함한 필리핀 권력 지형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 될 것이다.

2. 국내 안보의 위기: 엘리스 귀, 정치 스파이인가 국제 범죄자인가?

2024년 필리핀 국내 정치에서 발생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필리핀 정치인이 범죄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례였다. 필리핀에서 정치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엘리스 귀(Alice Guo)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 그녀의 등장과 퇴장은 필리핀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독특한 경우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엘리스 귀가 외국인임에도 국적을 위장하여 필리핀 정치인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이다. 과연 그녀는 중국의 스파이일까? 아니면 필리핀을 범죄에 활용한 범죄 집단의 일원일까?

그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녀의 등장 시기로 되돌아가 본다. 엘리스 귀는 2022년 필리핀 딸락(the Province of Tarlac)지역의 작은 소도시인 밤반(the Municipality of Bamban)에서 지방단체장으로 당선되며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성했다.¹⁾ 필리핀 지방 정치가 주로 특정 정치 가문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적 배경이 없던 그녀가 지방단체장에 오른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현지에서는 그녀의 공직자 진출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식으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전개했고, 온라인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지역민의 지지를 얻었다(Lauengco 2024). 게다가 일부 가문이나 유력 정치인이 지방정치의 맹주로 여겨지는 필리핀 지방정치의 특성을 가진 필리핀에서 전임 단체장이었던 호세 안토니오 펠리시아노(Jose Antonio Feliciano)의

1) 필리핀에서 Municipality는 지방정부의 한 단위로,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바랑가이(Barangay)의 상위 개념이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City)와는 구별된다.

지지 역시 그녀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Villaruel 2024).

사건의 발단은 엘리스 귀가 지방단체장으로 있었던 밤반에서 대규모 불법 온라인 사기 단체의 적발이었다. 경찰 당국은 온라인 사기와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신매매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총 800여 명이 검거되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427명), 필리핀(371명), 베트남(57명), 말레이시아(8명), 대만(3명), 인도네시아(2명), 르완다(2명) 등 다양한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Ramos 2024/05/09). 그런데 곧 상원의원인 가찰리안(Sherwin Ting Gatchalian)이 그녀와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사(POGO, Philippine Offshore Gaming Operator)의 설립 허가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그녀가 불법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귀는 곧장 성명을 통해서 자신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설명되지 않는 귀의 자산 형성 과정과 불법단체가 임대한 단지가 귀의 명의로 되어있음이 밝혀지면서 그녀와 범죄 집단 간의 연루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Bordey 2024b).

그런데 그녀의 범죄 집단 연루설은 곧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이어졌다. 지방 정치인의 불법적인 자금 추적과 불법단체와의 연루 사건이 곧 간첩 사건으로 전개된 것이다.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귀의 출생에 관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제기되었다. 귀가 제출한 세금 보고서의 주소에는 ‘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주소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귀는 상원에서 주최한 청문회에서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했으나, 필리핀 정부는 귀의 부모에 대한 출생 기록도 없고, 귀가 서류에 기재된 가족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음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증폭되었다(Ferreras 2024). 마침내 필리핀 국가수사본

부가 엘리스 귀의 지문과 중국 여권 소지자인 귀화평(Guo Hua Ping)과 지문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귀가 가짜 필리핀인이라는 것을 확정했다(Bordey 2024a).

귀가 가짜 필리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간첩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에 더해 귀의 선거에서 사용된 자금 역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한 증인은 귀의 선거 캠페인에 중국 국가안전부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증언하며, 귀가 중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하였다. 귀의 간첩설이 구체화 되자, 상원 위원회는 귀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귀와 그녀의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이미 필리핀을 떠난 뒤였다. 엘리스 귀는 후에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다(Tulad 2024).

필리핀 정부는 공식적으로 엘리스 귀를 간첩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귀가 경쟁국과 밀접한 관련(an agent of influence)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Abarca 2024). 이는 엘리스 귀에 대한 다른 중국 스파이의 증언 그리고 공직을 이용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엘리스 귀를 간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엘리스 귀 사건은 2024년 필리핀 정치의 특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준다. 첫째, 필리핀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범죄의 연계성이다. 엘리스 귀가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도박장은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전략적으로 확장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팬데믹 시기 동안 다수의 중국 자본과 노동자가 필리핀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에 상당한 세수를 제공하기도 했다(Banlaoi 2020: 99). 그러나 귀가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 불법 도박, 인신매매 등 심각한 범죄가 지역 사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필리핀 지방 정치와 범죄 간 연계 가능성을 암시한다. 엘리스 귀 사건은 필리핀의 국가 안보, 지

방 정치와 불법단체 간의 연계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위협이다. 이 사건은 필리핀의 부패 문제가 단순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 및 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테르테 정권 이후 필리핀은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귀가 중국 간첩 활동 및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필리핀 내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고조시켰다. 마르코스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엘리스 귀 사건은 외국 세력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Ⅲ. 경제

1. 경제 회복 흐름 속 늘어나는 정부 지출

2024년 필리핀의 경제는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2023년 필리핀은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였던 2022년 대비 다소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 들어서 1분기에는 5.8%를 그리고 2분기에는 6.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주변국인 베트남(6.9%)에 비해 다소 떨어질 뿐 말레이시아(5.8%)와 인도네시아(5.0%)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확실한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Gonzales 2024).

이러한 경제 부문의 청신호는 벌써 2025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다. 필리핀 경제의 이러한 호성적은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투자 및 소비의 회복에 기

인한다. 더불어 통화 완화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개발은행은 2024년 필리핀의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3.8%에서 3.6%로 낮추었는데, 이는 필리핀의 쌀 수입 관세 인하로 식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덕분이며, 2025년에 인플레이션 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필리핀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Asian Development Bank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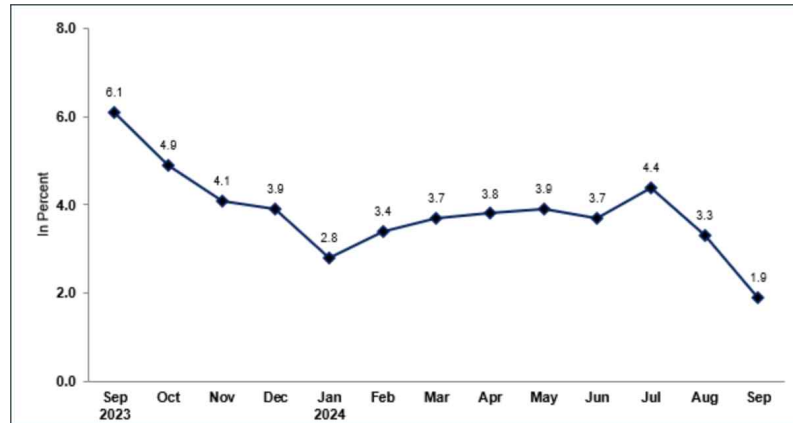
필리핀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수요의 강화와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진행한 덕분이었다. 강력한 노동시장의 상황,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해외 송금액이 작년 대비 증가하자 개인 소비 욕구를 향상시켰다(AMRO 2024). 또한 마르코스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가 주도 개발 프로젝트인 BBM을 출범시킨 것 역시 올해 필리핀 경제 성장을 이끈 기회요인이었다. BBM 프로젝트는 미화 1,640억 달러 규모로써 전임 정부의 77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총 194개의 주요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필리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Lopez 2024). 현재 마르코스 정부는 지방의 주요 산업단지의 확장과 더불어 국립 개발 회사 산업단지를 설립하는 등 해외 투자와 더불어 고용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 역시 향후 필리핀 경제의 순향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Monzon 2024).

BBM 프로젝트는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PDP,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PDP 프로젝트는 현재 인프라 부문의 총괄 계획 수립, 예산 책정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행정 절차를 위한 대통령 명령까지 발표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Maralit 2024). 마르코스 행정

부의 국가 주도 프로젝트의 진행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필리핀에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산업 전략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게다가 BBM 프로젝트의 기한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같은 것 역시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필리핀 경제 부문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노출되었던 소비자 물가는 2024년에 들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곡물 부문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15.6%에서 11.5%로 낮아지고, 작년 양팻값 파동을 겪을 만큼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채소는 6.1%에서 -4.3%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물가의 안정화가 나타났다(Bajo 2024).

<그림 1> 2023-2024 필리핀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출처: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위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3년 9월에 6.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2024년에 들어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추세다. 상반기에는 3%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점차 낮아져 3분기에는 1.9%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발

표한 물가 관리 지수 2~4%보다 더욱 낮은 수치이다. 2024년 3분기의 물가 안정은 주로 식품 부문의 가격 안정에 기인하였다. 특히 쌀 가격의 상승률이 8월보다 9월에 들어서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채소와 생선 등 실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Fuentes 2024).

전체적인 물가의 하락은 필리핀 경제에 청신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소비자 물가의 하락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쌀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과 쌀값의 하락을 유도했으나, 국내 쌀 생산량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필리핀의 쌀 수입량 증가는 수입국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농산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실제로 2024년 10월까지 필리핀은 329만 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그중 베트남에서 79%에 이르는 261만 톤의 쌀을 들여왔다(Vietnam Plus 2024/10/16).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필리핀의 쌀값 안정화 정책은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한 신호를 줄 수 있다.

한편, 관광산업의 회복은 필리핀 경제에 또 다른 호재였다. 2024년 상반기에만 2,800억 페소의 관광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 약 2,124억 페소 대비 32.81%가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상반기에만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이중 약 92%가 순수 해외방문객이었으며, 나머지는 해외 거주 필리핀인이었다. 필리핀 관광산업의 호황에 따라서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점차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20%가 관광산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랐다(Rocamora 2024).

현재 필리핀은 국가 주도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제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르코스 정부는 관광을 필리핀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관광 여건 개선과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 상공회의소와의 회담에서 필리핀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과 의료 관광의 목적지로서 필리핀의 잠재력 등을 강조하는 등 강화되고 있는 필리핀의 관광산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향후 필리핀 관광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보였다(Business World 2024/11/08; Cervantes 2024a).

필리핀 경제의 긍정적인 개선 징후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 행정부의 공격적인 경제 부흥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이 모든 계층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필리핀 싱크탱크 대표는 마르코스 정부 출범 이후 필리핀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8%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75년 중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부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할 뿐, 국가 전체의 발전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필리핀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빈곤율은 여전히 5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호황과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성과 간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Beltran 2024).

2. BBM 프로젝트의 명과 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BM(Build Better More)

프로젝트는 필리핀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건설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필리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마르코스 행정부로 이어진 국가 주도 개발 정책은 필리핀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간 연계성 향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 홍수 예방 및 관리 프로젝트 등 국가 기반 시설의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향후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견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도 이러한 정책들이 필리핀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omero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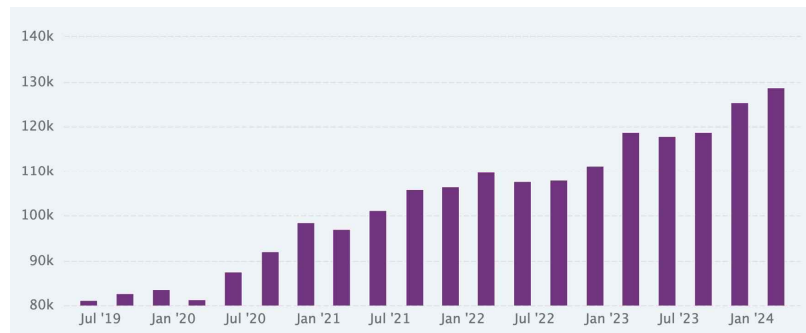
하지만 BBM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BBM이 가져올 경제적인 성과가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특정 지역과 교통부문에 치우친 발전 계획이다. BBM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메트로 마닐라(National Capital Region) 중심으로 중부 루손(Central Luzon)과 카라바존(CALABARZON)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에는 전체 194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68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단위 프로젝트가 41개인 것보다 웃도는 수치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정부 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BBM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또한 주요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79개의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 기금을 활용하고, 45개에는 민관합작의 형태로, 66개에는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여전히 부족

한 상황이다.

특히 아래의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BBB(Build, Build, Build)와 BBM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BBM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BBM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업에만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필리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BBM 프로젝트가 경제적 형평성과 국가적 포용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그림 2> 2019~2024 필리핀 국가 부채(미화)



출처: CEIC

BBM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업 진행의 투명성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연설(SONA, State of the Nation Address)에서 5,500개 이상의 홍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총 12건의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는 BBM 프로젝트의 효과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실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지연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임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시행된 BBB와 마르코스 행정부의 BBM은 운영 및 성과 측면에서 사업 지연과 프로그램 흡수 능력 부족 등의 공통적인 문제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atalinghug 2023). 이는 단순히 프로젝트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과 공공 신뢰 회복이 BBM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IV. 대외관계

1. 서필리핀해 분쟁의 지속과 필리핀의 다자간 협력 확대

2024년 필리핀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서필리핀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과의 갈등관리였다.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는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구도와 필리핀 국내 정치의 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의 선택을 분석할 때 단순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키노 정부 시기부터 중국과 벌이고 있는 서필리핀해 분쟁은 마르코스 정부에서도 가장 큰 외교적 난제였다. 마르코스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필리핀해 문제만큼은 중국과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중국은 필리핀 어부의 일상적인 어업활동을 실시간 추적하며, 시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호에 대한 보급을 군사적으로 방해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다(Xuanzun 2024). 마르코스 행정부는 전략적 순응과 강경 대응 사이에서 유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충돌 발생 시 긴장 완화 조치의 부담이 필리핀 정부에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2024년 6월 양국 해안경비대 간 충돌 이후, 마르코스 정부는 ‘강력한 대응’과 ‘다자간 협력 주의 확대’라는 새로운 기조를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듯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De Guzman 2024). 이에 따라 필리핀은 뉴질랜드,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및 호주와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구도 속에서 필리핀이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필리핀은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과 일본·호주의 안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다자간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Indo-Pacific Defense Forum 2024). 또한 한국·호주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은 필리핀의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역내 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마르코스 정부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역내 안보 구조 속에서 보다 강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Heydarian 2024).

이를 반영하듯, 필리핀 정부는 국내법적 조치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중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도해상교통로법(Philippine Archipelagic Sea Lanes Act)과 해양구역법(Philippine Maritime Zones Act)을 제정하여, 필리핀의 해양 권리를 국내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Strangio 2024). 이 법안들은 필리핀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Bernama 2024). 이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서필리핀해 분쟁에서 필리핀이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해양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며 타이퐁 미사일 시스템(Typhon Missile System)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Delizo 2024). 이는 단순한 방어적 조치를 넘어,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강력한 정치 및 군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필리핀의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미국과의 방위 협력 심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부적으로도 군부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서필리핀해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마르코스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경한 리더십을 부각하고 국내 지지를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Larus and Rice 2024).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대중국 전략은 단순히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제 및 국내 정치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필리핀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마르코스 행정부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관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과 제일 먼저 수교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2024년은 두 나라의 수교 관계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랜 외교 관계를 축하라도

하듯 두 국가의 정상은 해가 바뀌기 전에 만났다. 사실 두 정상
 만남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두 나라의 외교 관계
 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국방·방산·해양
 등 안보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이승준 2024). 서필리
 핀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두 국가의
 외교 관계의 격상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필리핀의 영
 토분쟁에서 한국이 외교적 역할과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의지를 내
 비쳤다는 점에서 필리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이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개
 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고, 대외협력 경제기금을 필리핀
 에 투자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
 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필리핀과 협력하
 기로 한 점이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로 해외 원자력 발전에서 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24).

필리핀은 지난 1976년 바탄(Bataan)역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착
 공했으나, 안전성과 환경파괴 우려로 1984년에 공사를 중단한 바 있
 다. 그런데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핵에너지를 국가 에
 너지원으로 채택하려는 정책 방향을 세웠고, 바탄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하거나 이를 대체할 부지를 찾는 상황이었다. 양국의 합의에 따
 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바탄 원자력 발전소의 재개를 위한 경제성
 과 안정성 등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기술 수출 프로젝트를 필리핀
 에서도 기동함으로써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한 관계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외교 관계 격상과 군사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증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필리핀과 군사 협력과 서필리핀해에서의 안보 활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주변국의 영토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외교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필리핀과 중국은 서필리핀해 영토분쟁을 진행 중이며, 필리핀은 군 현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필리핀 협력 추진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한국이 필리핀에 무기와 전투기를 제공하면 중국이 이를 중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은 마르코스 정부의 서필리핀해 정책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중국은 필리핀이 미국, 일본, 호주와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을 반중국 연합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De Castro 2024). 따라서 필리핀과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이 마치 대한민국이 반중국 연합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 경제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해로 평가된다. 2023년 체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2024년의 마지막 날에 공식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기존 관세(각각 5%, 3~30%)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한-필리핀 FTA 실무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들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필리핀 수출 증가와 실제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박명기 2025).

경제협력의 강화는 기업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수빅 조선소의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국의 한 대기업은 해상풍력 구조물 및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가 가능한 해양 복합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 해군이 사용 중인 수빅 조선소에는 한국 기업이 조성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2022년 한국 기업이 군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 함정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실질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기업의 주도적 참여는 필리핀 마르코스가 한-필 경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주최한 여러 경제협력 관련 행사에 한국 대사와 한국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점은 양국의 협력이 정부 차원을 넘어 기업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한-필 협력이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V. 맺음말

2024년 필리핀의 국내 정치에서는 두 거대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권력 형성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웠던 두 세력의 연합은, 정권 초기부터 이질적인 두 선이 일시적

으로 교차한 것에 불과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멀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결별로 이어졌다. 마르코스 정권의 전반기가 두테르테 진영과의 정치적 결별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후반기는 양측 모두 향후 권력 획득을 위한 전면적인 경쟁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본격적인 세력 대결을 벌이기 시작한 전초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필리핀 정치의 두 거대 세력 간 경쟁에서 현재 집권 세력인 마르코스 진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0월 발표된 여론조사(OCTA Research)에 따르면,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율은 15%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를 기록하며 지난 분기보다 2%p 상승했다(Cervantes 2024b).

특히, 마르코스는 수도권과 북부지역(루손)에서 각각 42%와 43%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2024년 내내 지속된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정치적 주도권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리는 민다나오에서만 48%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을 뿐, 수도권(6%), 루손(3%), 비사야스(12%)에서는 지지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 현상은 사리를 비롯해 두테르테 진영이 전국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Locus 2024).

또한, 2025년 2월, 필리핀 하원이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는 두테르테 진영 전체에 정치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306석의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는 102표이나, 최소 21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리를 비롯한 두테르테 계파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다(Panti 2025).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는 두테르테 진영이 향후 권력 재편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마르코스 진영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미래 권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으며, 사라 탄핵 결과는 두 정치 세력 간의 경쟁 구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필리핀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 쟁점이 난무하며, 정치적 양극화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라의 부패 혐의가 두테르테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는 필리핀 경제는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다나오를 기반으로 한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의 정치적 귀환 가능성과 함께 중간선거와 이후 대선 국면에서 양측의 세력 결집이 본격화될 경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결국 필리핀 정치의 두 거대 세력 간 충돌은 다가오는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한편, 필리핀의 대내외적 안보에 대한 우려는 마르코스 정부의 전 반기를 관통하는 주요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서필리핀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필리핀의 해양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는 과거와 비교해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르코스 행정부는 국내법적 접근과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선택했다.

더욱이, 필리핀 경제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외국인 투자 의존도 증가와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

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필리핀 경제가 외부 충격(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에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Africa 2024)

국제적으로는, 필리핀의 외교 전략이 미·중 경쟁 속에서 보다 정교한 조정 과정을 요구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세안 역내 협력 확대를 통해 다자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밀착이 지나칠 경우 필리핀 내부에서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국 외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리핀 외교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Camba 2024).

2024년 필리핀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경제 성장과 불확실성의 공존, 외교·안보 전략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가올 중간선거와 그 이후의 정치적 변동이 필리핀 사회에 어떠한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 김동엽. 2024. “필리핀 2023: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과 친미동맹외교의 강화.” 『동남아시아연구』 34(1): 99-129.
- 박명기. 2024. “드디어 한-필리핀 FTA 발효...자동차-부품, 식품 ‘수출’ 수혜 주목.” *ASEAN EXPRESS*. 1월 6일.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0963>
(검색일: 2025/02/13)
- 산업통상자원부. 2024. “세계가 궁금해 하는 K-원전, 한국의 원전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다.” 9월 19일. <https://www.motie.go.kr/attach/down/095a2dda9c864e1d90d751f7668a1117/5863a9f87a45cf428ea44a2478ef3247> (검색일: 2024/12/24)
- 이승준. 2024. “윤 대통령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북핵 용인 못해’.” 『한겨레』. 10월 7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329.html (검색일: 2024/11/10)
- Abarca, Charie. 2024. “Is Alice Guo really a spy? NICA labels her an ‘agent of influence’.” *Inquirer*. November 26. <https://globalnation.inquirer.net/256622/is-alice-guo-really-a-spy-nica-labels-her-an-agent-of-influence> (검색일: 2024/11/28)
- Africa, Sonny. 2024. “Philippine economy so right, its’s wrong.” *IBON*. June 18. <https://www.ibon.org/philippine-economy-so-right-its-wrong/> (검색일: 2025/02/13)
-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2024. “Philippines: Enhancing Growth Potential, Building Policy Buffer amid Uncertainty and Challenges.” September 10. <https://amro-asia.org/philippines-enhancing-growth-potential-building-policy-buffer-amid-uncertainty-and-challenges> (검색

일: 2024/12/08)

Anonymous interviewee. 2025. "A journalist from a Davao-based media outlet." January 23.

Asian Development Bank. 2024. "Slower Inflation, Higher Investment and Consumption to Support Philippine Growth through 2024, 2025." September 25.

<https://www.adb.org/news/slower-inflation-higher-investment-and-consumption-support-philippine-growth-through-2024-2025> (검색일: 2024/10/14)

Ayalin, Adrian. "ICC return up to Marcos after House quad comm revelations, says DOJ." *ABS-CBN News*. October 15. <https://www.abs-cbn.com/news/2024/10/15/icc-return-up-to-marcos-after-house-quad-comm-revelations-doj-1132> (검색일: 2024/11/06/)

Bajo, Anna Felicia. 2024. "Marcos welcomes easing of inflation rate." *GMA News Online*. September 5.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19389/marcos-easing-inflation/story/> (검색일: 2024/10/14)

Bajo, Anna Felicia and Ombay, Giselle. 2024. "PDEA: Marcos was never on our drug watch list." *GMA News Online*. January 29.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19389/marcos-easing-inflation/story/> (검색일: 2024/10/14)

Banlaoi, Rommel. 2020. "Benefits and Costs of the Philippines' Paradigm Shift to China." Marie Antoinette P. de Jesus (eds.). *Dealing with China in a Globalized World: Some Concerns and Considerations*. Konrad Adenauer Stiftung. p. 99-122.

Beltran, Michael. 2024. "As Philippines's Marcos addresses nation,

- economy, Duterte rift loom large.” *Aljazeera*. July 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4/7/22/as-philippines-marcos-addresses-nation-economy-duterte-rift-loom-large> (검색일: 2024/12/10)
- Bernama, Anadolu. 2024. “Philippines signs new laws on South China Sea” *The Sun*. September 11. <https://thesun.my/world-news/philippines-signs-new-laws-on-south-china-sea-KG13261803> (검색일: 2024/12/04)
- Bordey, Hana. 2024a. “NBI finds Alice Guo, Guo Hua Ping have same fingerprints.” *GMA News Online*. June 27.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11462/nbi-alice-guo-guo-hua-ping-same-fingerprints/story/> (검색일: 2024/11/27)
- _____. 2024b. “Alice Guo's 2022 campaign was arranged by Chinese state security.” *GMA News Online*. October 8.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22950/alice-guo-s-2022-campaign-was-arranged-by-chinese-state-security/story/> (검색일: 2024/11/20)
- Bueser, Percival. 2025. “FACT CHECK: Davao City pre-election survey attributed to OCTA Research is fake.” *Rappler*. January 31. <https://www.rappler.com/newsbreak/fact-check/davao-city-pre-election-survey-attributed-octa-research-fake/> (검색일: 2025/02/13)
- Business World. 2024/11/08.. “AmCham Philippines to host ‘AmCham Tourism Summit 2024: Elevating Philippine Tourism and Infrastructure for Global Competitiveness’.” <https://www.bworldonline.com/spotlight/2024/11/08/633706/amcham-philippines-to-host-amcham-tourism-summit-2024-elevating-philip>

- pine-tourism-and-infrastructure-for-global-competitiveness/#google_vignette (검색일: 2024/12/25)
- Camba, Alvin. 2024. "The Philippines Needs Butter, Not Just Guns." *Foreign Policy*. May 28. <https://foreignpolicy.com/2024/05/28/philippines-marcos-us-china-economy-security/> (검색일: 2025/02/13)
- CEIC. 2024. "Philippines External Debt."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philippines/external-debt> (검색일: 2024/12/24)
- Cervantes, Filane Mikee. 2024a. "Marcos: Parañaque hotel uplifts PH tourism, economic potentials." *Philippine News Agency*. June 23. <https://www.pna.gov.ph/articles/1227481> (검색일: 2024/12/10)
- _____. 2024b. "Pro-Marcos Filipinos on steady upward trend - OCTA survey." *Philippine News Agency*. October 14. <https://www.pna.gov.ph/articles/1235458> (검색일: 2025/01/06)
- Clarke-Billings, Lucy. 2024. "Leila de Lima cleared of all criminal charges." *BBC*. June 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qeeeq8r18go> (검색일: 2024/11/03)
- De Castro, Renato Cruz. 2024. "The Philippines' Renewed 'Hard Balancing' Policy toward China: Has the Time Come for De Facto Philippine-Taiwan Security Relations?" *Global Taiwan Institute*. March 6. <https://globaltaiwan.org/2024/03/the-philippines-renewed-hard-balancing-policy-toward-china-has-the-time-come-for-de-facto-philippine-taiwan-security-relations/> (검색일: 2024/12/24)
- De Guzman, Chad. 2024. "'We Have to Do More': Marcos Urges Fiercer Response, While Showing Restraint, Toward Chinese

- Aggression in South China Sea.” *Time*. June 27. <https://time.com/6992894/marcos-philippines-south-china-sea-response-restraint/> (검색일: 2024/10/30)
- De Leon, Dwight. 2024. “Comelec releases calendar of activities for 2025 elections.” *Rappler*. May 29. <https://www.rappler.com/philippines/elections/comelec-calendar-activities-dates-remember-2025-midterm-polls/> (검색일: 2024/10/14)
- Delizo, Michael. 2024. “Philippine military plans to acquire US Typhon missile system.” *ABS-CBN News*. December 23. <https://www.abs-cbn.com/news/nation/2024/12/23/planning-negotiations-for-acquisition-of-mrc-missile-system-underway-ph-army-1255> (검색일: 2024/12/25)
- Ferreras, Vince. 2024. “No Guo at address Alice's father declared to BIR.” *GMA News Online*. May 31.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08555/no-guo-at-address-alice-s-father-declared-to-bir/story/> (검색일: 2024/11/20)
- Flores, Mikhail. 2024a. “ICC has no authority to probe Philippines, Marcos tells Germany's Scholz.” *Reuters*. March 1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cc-has-no-authority-probe-philippines-marcos-tells-germanys-scholz-2024-03-14/> (검색일: 2024/11/05)
- _____. 2024b. “Philippines Marcos' says he will not block ICC if ex-president Duterte wants to be investigated.” *Reuters*. November 1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philippines-marcos-says-will-not-block-icc-if-ex-president-duterte-wants-be-2024-11-14/> (검색일: 2024/11/05)
- Flores, Mikhail and Karen Lema. 2024. “Philippine VP Duterte exits

- Marcos cabinet as their alliance crumbles.” *Reuters*. June 1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philippine-vp-resigns-education-minister-marcos-alliance-crumbles-2024-06-19/> (검색일: 2024/11/08)
- Fuentes, Arthur. 2024. “Inflation eases further in September amid slower increases in rice prices.” *ABS-CBN News*. October 4. <https://news.abs-cbn.com/business/2024/10/4/inflation-eases-further-in-september-813> (검색일: 2024/12/17)
- Gomez, Jim. 2024. “Ex-Philippine Leader Duterte assails Marcos, accusing him of plotting to expand his grip on power.” *AP News*. January 29. <https://apnews.com/article/philippines-president-marcos-duterte-7de1c646845a99f485a89e90681c6d15> (검색일: 2024/10/14)
- Gonzales, Anna Leah. 2024. “PH economic growth accelerates to 6.3% in Q2 2024.” *Philippine News Agency*. August 8. <https://www.pna.gov.ph/articles/1230738> (검색일: 2024/10/30)
- Gutierrez, Pia. 2024. “Marcos on VP Sara Duterte’s kill threat: ‘Yang ganyang kriminal na pagtatangka ay di dapat pinapalampas’” *ABS-CBN*. November 25. <https://www.abs-cbn.com/news/nation/2024/11/25/marcos-on-vp-sara-duterte-s-kill-threat-yan-ay-aking-papalagan-1337> (검색일: 2025/02/13)
- Heydarian, Richard. 2024. “South China Sea: Philippines Hedges Its Bets Between U.S. and China.” *China & US Focus*. August 30. <https://www.chinausfocus.com/peace-security/south-china-sea-philippines-hedges-its-bets-between-us-and-china> (검색일: 2025/02/13)
- Indo-Pacific Defense Forum. 2024. “Japan-Philippines ties strengthen

- Free and Open Indo-Pacific.” <https://ipdefenseforum.com/2024/06/japan-philippines-ties-strengthen-free-and-open-indo-pacific/> (검색일: 2025/02/13)
- Lacorte, Germelina. 2024. “‘Count me out’ as Davao mayor, says ‘tired’ Duterte.” *Inquirer*. November 12. <https://newsinfo.inquirer.net/2003714/count-me-out-as-davao-mayor-says-tired-duterte> (검색일: 2025/02/13/)
- Larus, Elizabeth and James Rice. 2024. “The Philippines’ domestic politics are the wildcard in its trilateral partnership with the US and Japan.” *Atlantic Council*. May 29.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philippines-domestic-politics-are-the-wildcard-in-its-trilateral-partnership-with-the-us-and-japan/> (검색일: 2025/02/13)
- Lauengco, Gilberto. 2024. “Bamban and the nature of local politics.” *Philippine News Agency*. May 15. <https://www.pna.gov.ph/opinion/pieces/881-bamban-and-the-nature-of-local-politics> (검색일: 2024/11/10)
- Locus, Sundy. 2024. “OCTA: Pro-Marcos Filipinos up further in Q3 2024; pro-Duterte down.” *GMA News Online*. October 14.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23627/octa-survey-pro-marcos-pro-duterte/story/> (검색일: 2025/02/13)
- Lopez, Tony. 2024. “Five things BBM did in two years.” *Phil Star*. June 25. <https://www.philstar.com/opinion/2024/06/25/2365316/five-things-bbm-did-two-years> (검색일: 2024/10/14)
- Magramo, Kathleen. 2024. “Duterte returns as Philippines’ political clans wage ‘a fight to the death’.” *CNN*. November 16, <https://>

- edition.cnn.com/2024/11/16/asia/philippines-rodriigo-duterte-davao-mayor-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5/02/15)
- Maralit, Kristina. 2024. "Marcos orders integration of infra processes." *The Manila Times*. November 3. <https://www.manilatimes.net/2024/11/03/news/marcos-orders-integration-of-infra-processes/1996564> (검색일: 2024/12/18)
- McCoy, Rahman and M. Somer. 2018. "Polarization and the Global Crisis of Democracy: Common Patterns, Dynamics, and Pernicious Consequences for Democratic Pol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2(1): 16-42.
- Monzon, Alden. 2024. "Malacañang proclaims 19-ha new ecozone in Cavite." *Inquirer*. October 1. <https://business.inquirer.net/482988/malacanang-proclaims-19-ha-new-ecozone-in-cavite> (검색일: 2024/12/08)
- Palatino, Mong. 2024. "Ex-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Leads 'Prayer Rallies' Against Charter Change." *The Diplomat*. March 5. <https://thediplomat.com/2024/03/ex-philippine-president-rodriigo-duterte-leads-prayer-rallies-against-charter-change/> (검색일: 2024/12/20)
- Panti, LLanesca. 2025. "25 more lawmakers back VP Sara impeachment -House SecGen." *GMA News Online*. February 7.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35538/25-more-lawmakers-back-vp-sara-impeachment-house-secgen/story/> (검색일: 2025/02/13)
- Patalinghug, Epictetus. 2023. *The Challenges In Transitioning To Infrastructure Program*. Makati: ADRi Publications.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24/10/04. "Consumer Price Index and

- Inflation Rate.” <https://psa.gov.ph/price-indices/cpi-ir> (검색일: 2024/12/20)
- Przeworski, Adam. 2019. *Crises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os, Marlon. 2024. “Hontiveros won’t let go of Bamban mayor over ties to Pogo.” *Inquirer*. May 9. <https://newsinfo.inquirer.net/1938663/risa-wont-let-go-of-bamban-mayor-over-ties-to-pogo> (검색일: 2024/11/10)
- Ratcliffe, Rebecca. 2024a. “Duterte calls Philippine president ‘a drug addict’ as rift deepens.” *The Guardian*. January 2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jan/29/rodrigo-duterte-calls-philippine-president-drug-addict-rift-deepens-ferdinand-marcos-jr> (검색일: 2024/10/14)
- _____. 2024b. “Duterte drug war back in ICC spotlight after parliamentary committee hears claims his office paid police \$17,000 to kill suspects.” *The Guardian*. October 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oct/17/duterte-drug-war-back-in-icc-spotlight-after-parliamentary-committee-hears-claims-his-office-paid-police-17000-to-kill-suspects-ntwnfb> (검색일: 2024/11/07)
- Rocamora, Joyce Ann. 2024. “PH tourism revenue hits P282-B; up 32.8% in Hi of 2024.” *Philippine News Agency*. July 11. <https://www.pna.gov.ph/articles/1228739> (검색일: 2024/12/22)
- Romero, Alexis. 2024. “Marcos open to probe of flood control projects.” *The Philstar*. November 5.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4/11/05/2397690/marcos-open-probe-flood-control-projects> (검색일: 2024/12/12)

- Storey, Henry. 2024. "Marcos vs Duterte: Domestic politics meets grand strategy." *The Interpreter by Lowy Institute*. August 5.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marcos-vs-duterte-domestic-politics-meets-grand-strategy> (검색일: 2024/10/14)
- Strangio, Sebastian. 2024. "Philippines' Marcos Signs Laws Aimed at Strengthening Maritime Claims." *The Diplomat*. November 11. <https://thediplomat.com/2024/11/philippines-marcos-signs-laws-aimed-at-strengthening-maritime-claims/> (검색일: 2024/12/01)
- Tulad, Victoria. 2024. "Senate fails to find Alice Guo, detains ex-accountant Gamo." *ABS-CBN News*. July 13. <https://www.abs-cbn.com/news/2024/7/13/senate-fails-to-find-alice-guo-detains-ex-accountant-gamo-2017> (검색일: 2024/11/27)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 "Presidential Trade and Investment Mission: Partnering with the U.S. Private Sector to Deepen U.S.-Philippine Commercial Ties."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4/03/presidential-trade-and-investment-mission-partnering-us-private-sector> (검색일: 2024/10/14)
- Vietnam Plus. 2024/10/16. "Philippines remains the world's largest rice importer." <https://en.vietnamplus.vn/philippines-remains-the-worlds-largest-rice-importer-post298391.vnp> (검색일: 2024/11/10)
- Villaruel, Juhn Etienne. 2024. "Ex-Bamban mayor who endorsed Guo speaks up: 'Hindi kami masyadong close'." *ABS-CBN News*. September 11. <https://www.abs-cbn.com/news/2024/9/11/ex-bamban-mayor-who-endorsed-guo-speaks-up-hindi-kami-mas>

378 동남아시아연구 35권 1호

yadong-close-1500 (검색일: 2024/11/08)

Xuanzun, Liu. 2024. "Philippines continues to provoke with airdropping, fishermen trespass in South China Sea." *Global Times*. January 28.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01/1306220.shtml>
(검색일: 2024/11/30)

Zialcita, Jean Paul. 2024. "The Philippines in 2023: The Uniteam Unravels." *Philippines Political Science Journal*. 45: 82-103.

(2025.01.10. 투고, 2025.01.15. 심사, 2025.02.11. 게재확정)

<Abstract>

Philippines 2024: Deepen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Continuity of Domestic and External Security Crises

Changwon YANG
(Sogang University)

In 2024, the Philippines concluded the first half of the Marcos administration amid political turmoil and security challeng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the deteriorating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Marcos and Vice President Sara Duterte intensified conflicts between the two factions, further deepening political polarization. Economically, high growth rates and stable inflation supported the approval ratings of the Marcos administration. However, the return of former President Duterte to local politics has further escalated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The upcoming midterm and local elections are expected to become a battleground for the consolidation of power an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major political forces.

Meanwhile, the crackdown on an illegal online organization and its connection to an espionage case revealed serious vulnerabilities in the Philippines' national security. This incident, occurring amid ongo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in the West Philippine Sea, exposed

structural issues within Philippine society while heighten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In response, 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sought to strengthen security by enacting domestic laws to protect maritime rights and bolstering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celebrating the 7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agreed to elevate their partnership to a strategic level and to cooperate in areas such as energy, construction, and maritime security. The year 2024 highlighted the challenges of the Philippines' political and security structures, marking a turning point for future power dynamics and diplomatic strategies.

Key Words: Duterte, Philippin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Philippine midterm elections, President Marcos Jr., West Philippine Sea territorial dispute